

개회사



전 범 권(국립산림과학원장)

먼저 오늘 『2019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님, 윤준호 의원님, 거주풍경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주실 승효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앞장서 이끄시는 김재현 산림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산림과 임업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와 단체의 모든 분들과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임업·산촌,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를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핵심 국정과제인 산림일자리 창출과 산촌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임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가늠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산촌, 기회와 도약’이라는 큰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 임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남북 산림협력 분야입니다. 남북 산림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행동입니다.



2019 산림·임업 전망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 분야입니다. 숲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의 숲을 잘 조성하고 가꾸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분야입니다. 2018년 7월 산림흡수원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꾸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여하고 감축 실적을 판매하여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산촌과 산림일자리 창출 분야 역시 중요합니다. 숲을 터전으로 하는 산촌이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돌아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산촌과 숲에 만들어질 때 가능하며, 산림과 숲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표대회는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서비스, 산림탄소시장 등 국민 여러분과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산림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이야기 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꿈을 싹 틔우고 산림산업의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전 범 권